

반도체용 화학제품 시장성 활짝

산자부, 2015년 반도체 발전전략 추진 ... 수출 760억달러 목표

2015년 반도체산업을 세계 2강으로 도약시켜 수출 76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추진돼 반도체용 화학제품 수요증가가 기대된다.

주력산업인 반도체분야의 <2015년 발전전략> 발표회가 10월2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차세대반도체 성장동력사업단 주관으로 국내 반도체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15 반도체 발전전략>은 2015년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 확대, 경쟁국과의 메모리분야 격차 확대, 장비·재료 분야의 자립화 기반 확보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된다.

반도체 발전전략의 체계적 실천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발전기반 강화, 차세대 기술개발의 전략적 추진, 장비·재료산업의 기술력 제고, 기술혁신 인력양성의 체계화, 수출 마케팅능력의 극대화 등 5대 세부 추진과제도 제시될 예정이다.

5대 세부과제를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2015년 국내 반도체산업은 현재 세계 3위에서 2강으로 도약하게 되고 2015년 반도체 수출은 2005년 전망치 300억달러의 2.5배 수준인 76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시장 점유율도 현재 10%의 2배 수준인 20%가 예상되고 장비 국산화율은 50%, 재료는 75%로 확대될 전망이다.

2004년 현재 장비 및 재료 국산화율은 각각 18%, 50% 수준에 불과했다.

반도체 발전전략 발표회에는 산업자원부 조환익 차관의 개회사에 이어 삼성전자 우남성 부사장 등 소자 메이커 임원, 설계와 장비·재료업계 대표, 이귀로 LG종합기술원 원장, 김형준 서울대 교수 등 국내 반도체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발표회는 한국이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 세계 5위권 내외의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잠재역량을 적극 활용해 2015년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달성에 반도체산업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자는 데서 비롯됐다.

한편,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대전(SEDEX 코리아)을 확대해 2006년부터 국제 반도체·디스플레이 전시회(I-SEDEX)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6년 10월 처음 열릴 I-SEDEX는 소자, 설계, 장비, 재료 등 반도체 관련 전 산업군이 참가하는 종합전시회로 기획된다.

<화학저널 2005/10/28>